

2024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1	③	2	④	3	⑤	4	③	5	①
6	③	7	④	8	③	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①	17	④	18	⑤	19	④	20	⑤

1. [출제의도] 장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逍遙遊]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과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2.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과 탐구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았고,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성적 덕 중 하나인 실천적 지혜는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어떤 상태가 중용인지 알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보았고, 사덕은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주체적인 권능[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흄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흄은 감정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라고 보고,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흄은 도덕적 선악이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마르크스와 모어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같은 마르크스, 혹은 모어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이다.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시민들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며 잉여 시간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재화가 풍족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6.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혜능, 혹은 지눌이다. 혜능은 경전 공부나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고[頓悟] 마음을 단박에 닦을 수 있다[頓修]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오랜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漸修]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마음의 본체[定]와 마음의 작용[慧]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동학과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학의 최제우, 혹은 위정척사 사상이 최익현이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의 덕을 밝히며 후천

개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정척사 사상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프로타고라스, 혹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숙고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페티트와 벌린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페티트, 혹은 벌린이다. 페티트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지배받을 수 있는 상태에 개인이 놓여 있다면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다. 벌린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한편 페티트와 벌린은 공통적으로 법에 의한 간섭은 부당한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듀이와 사르트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듀이, 혹은 사르트르이다. 듀이는 정적인 성과보다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고 보고,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듀이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로크와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로크, 혹은 루소이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의 보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을 보호하고자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인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로크와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소유물을 보존하는 데 있다.

12. [출제의도] 흄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은 흄스의 주장이다. 흄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흄스는 로크와 달리 시민이 군주에게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자, 혹은 공자이다. 노자는 인의[仁義]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인[仁]을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보았으며, 군자는 자신의 이익[利]보다 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으로 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자유 의지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피노자는 이성의 인도에 따른 삶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주희, 혹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이치[理]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각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양지를 발휘[致良知]하여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황, 혹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이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이를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정으로 보았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감정으로,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플라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인 좋음[善]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릴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순자, 혹은 맹자이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性惡說]고 보았으며, 옛 성왕이 제정한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性善說]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순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사람은 선천적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밀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밀, 혹은 칸트이다. 밀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밀과 칸트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산출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에픽테토스, 혹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